



2만불 시대

중소기업이 일어납니다



중소기업청  
브리핑

제2호 2003년 12월 5 (금) 공보담당관실 TEL.042-481-4329~32 / FAX.042-472-3264

## 제8회 중소기업금융지원상 시상식 개최



『제8회 중소기업금융지원상』 시상식이 2003. 11. 25(화) 14:00,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을 비롯한 금융기관 및 중소기업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동 COEX 4층 콘퍼런스룸에서 중기청 주최로 개최되었다.

중소기업금융지원상은 지난 1년간 국내·외 경기 침체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금융지원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금융인들을 격려하고, 보다 적극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날 영예의 단체부분 대

통령 표창에는 국민은행이 수상하였으며, 개인부분의 경우 은탑산업훈장에 김종열 하나은행 부행장을 비롯하여 동탑산업훈장에 유홍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철탑산업훈장에 이 규 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 등 모범금융인 5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금융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된 국민은행은 '03. 10월말현재 중소기업 대출잔액이 39조7,962억원이며, 이중 49.5%인 19조7,017억원을 신용으로 대출하였고 금융이용 편의제고 및 원활한 금융조달을 위해 새로운 여신제도 개발에 전력하여, "신기술개발지원자금대출", "단기시설자금대출" 등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많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개인표창으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게 된 김종열 하나은행 부행장은 25년간 금융기관에 근무한 이래 기존 금융기관의 여신취급 관행인 담보위주의 여신에서 탈피, 기술력 및 사업성 등 기업의 성장성을 위주로



여신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에 신용여신을 적극 지원한 공로가 인정되어 훈장을 수상하게 되었다.

▶ 경영지원국  
자금지원과  
(042-481-4382)

# 연간 2조달러 규모의 세계 조달정보를 한눈에 !



중기청에서는 연간 2조달러 규모의 국제조달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과 참여 촉진을 위하여 「국제조달시장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03. 11. 24일 COEX에서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금번 국제조달정보망 구축사업은 세계 수출시장의 2.7%를 점유하는 제11대 무역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조달분야의 경우 중국,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0.2%인 40억달러 참여에 불과한 현실을 적극 타개하고,

미개척 틈새시장인 국제조달 시장에 대한 전략적 타켓 마케팅을 위한 초기 인프라 확충차원에서 추진되었다

국제조달시장 통합정보망」의 도메인 주소는

www.b2g.go.kr, 운영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할 예정으로,

▶ 120여개국의 입찰정보를 품목별로 분류하여 일 1,000~5,000건 제공

▶ 주 계약자 (Prime Contractor) 상세정보, 핵심 조달기관 입찰·낙찰 정보, 과거 History 분석을 통한 조달 예측정보

▶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과의 협력참여(컨소시엄 및 하청참여 등) 논의공간 마련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금번 국제조달정보망 개통으로 기업의 국제입찰 정보 검색비용이 연 135억원 절감되는 등 기대효과도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향후 0.2%인 국제조달시장의 현재 점유율을 0.5% 수준으로만 상향되도록 관련 인프라가 확충된다면, 60억 달러의 신규 수출시장 개척 효과가 발생한다고도 추정하고 있다

향후, 중소기업청에서는 국제조달시장 진출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금번 국제조달정보망을 통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금년 11월말 국제조달 관련 세미나 및 교육 등을 개최하여 국제조달시장에 대한 관심과 진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며,

'04년부터는 주계약자(Prime Contractor)와 상담알선, FOSE 등 조달전문 전시회 참가 및 국가별 조달전문 Agent를 통한 입찰 대행 등 "Off-line 국제조달시장 진출지원 사업"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경영지원국  
판로지원과  
(042-481-4467)

## 『중소기업 정보화 Fair 2003』 성황리 개최



정보화 우수기업의 사례 발표 및 벤치마킹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정보화 추진 의지를 고취하고,

우수 솔루션 보유 IT기업의 IT 트렌드 및 신기술 소개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정보화 성공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한 『중소기업 정보화 Fair 2003』이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COEX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의 정보화 인력부족 및 청년실업의 연계해결방안을 모색코자 '정보화 인력 채용박람회'를 동시 개최하여, 구인 업체와 구직자들 모두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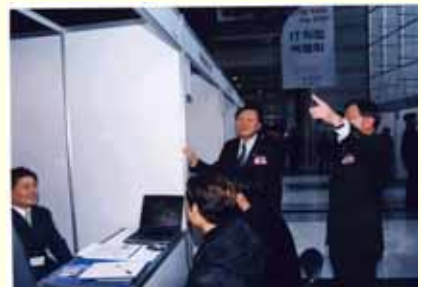
행사 첫 날인 26일에는 3개의 트랙에서 "중소기업 생산정보화 구축사례" 및 "커뮤니티형 e-Business 모델개발 사례" 벤치마킹 세미나가 열렸으며,

LG전자(주) 유영민 상무와 숭실대학교 이남용 교수 등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보화 협력방안", "중소기업의 디지털 리더쉽"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이틀째인 27일에는 e-컨설팅 및 업종별 정보화 사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IT업체를 대표하여 시큐아이닷컴(주)의 오경수 대표, 한국HP의 권영원 부장 등이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대책", "차세대 관리모델 ITSM 구축전략" 등 정보보호 및 IT트렌드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동 행사는 중소기업이 정보화 추진시 직면하게 되는 추진상의 애로점, 성공방안 등 사례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정보화에 대한 가시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시행착오를 줄여 효과적인 정보화 구축전략 수립을 지원함과 더불어

국내 IT업계에 중소기업 정보화의 현주소와 성공적인 IT수요 개발의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경영지원국  
정보화지원과  
(042-481-4401)

## 현장중심 산학연 협력사업, 성과 탁월



중기청이 2001년도에 시행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추진성과를 분석한 결과, 기술개발비를 지원 받은 업체의 약 23%가 사업화에 성공했으며, 매출증대 효과는 약 6.8배로 나타나는 등 참여 중소기업에 미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중기청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이 참여 중소기업에 미친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보기 위해 지난 4~10월까지 6개월 동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를 통해 2001년도 사업에 참여한 160개 대학 및 22개 연구기관이 업체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한 2,327개 과제를 대상으로

설문 및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 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는 약 80%이고, 개발과제의 사업화 성공률도 약 23%로 추정되는 등 사업의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개발과제의 23%가 이미 시장출시를 완료하였으며, 사업화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과제도 약 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성과를 보면, 약 468억원을 투자하여 사업 전체적으로 매출증대 3,174억원, 비용절감 1,248억원, 수입대체 1,179억원, 수출증대 912억원 등의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금 1억원당 매출증대 6.8억원, 비용절감 2.7억원, 수입대체

2.5억원, 수출증대 2억 원을 산출했다.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기업내부에서 고용창출효과가 있었던 업체가 40.4%였고, 지역내 고용창출효과가 있었던 업체는 18.5%로 나타났는데 이는 업체 내부에서 과제평균 0.47명, 외부에서 0.18명으로 총 0.64명의 고용효과가 추정되어, 사업전체로는 1,499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기술적 성과를 보면, 기술개발과제 1개당 논문 0.54건, 시작품 개발 0.81건, 특허출원 0.35건, 특허등록 0.09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지원금 1억원당 논문 2.7편, 시제품 4.0건, 특허출원 1.7건, 기술이전 0.4건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기술지원국  
기술개발과  
(042-481-4443)

## 10월 신설법인 대폭 증가

중기청이 발표한 "10월중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10월중 신설법인수는 2,864개업체로 전년동월에 비해 17.2% 감소하였으나 전월에 비해서는 3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들어 전월과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서로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않는 최근 경기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 창업동향을 보면 제조업이 지난해말 이후 전년동월대비 큰폭의 감소세( $\Delta 36.8\%$ )를 지속하였고, '건설및설비업'은 전월( $\Delta 36.8\%$ )에 비해 감소폭이 둔화( $\Delta 24.0$ )된 반면, 서비스업은 지난달( $\Delta 6.9\%$ )보다 감소 폭이 다소 확대된  $\Delta 8.1\%$ 를 기록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수원을 제외한 전지역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가운데 서울부산, 대구 등 대도시가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세를 기록했다

한편, 10월중 부도법인 대비 신설법인 배율은 전월의 10.1배에서 12.7배로 상승하였는데, 전월대비 신설법인수의 증가폭이 부도법인 증가폭보다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중소기업정책국  
조사평가과  
(02-509-7040)